

마가복음 4:3의 번역과 해석

문우일*

1. 들어가며

강의 시간에 우리말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나란히 읽고 그 뜻을 설명하자, 한 학생이 우리말 성경은 원어 성경의 뜻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물었다. 그래서 정확한 측정은 어려우나, 우리말 성경에서 원어의 뜻을 상상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고 답하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개역개정』은 λόγος라는 단어를 “말”(행 6:5), “말씀”(행 6:7); “소문”(행 11:22), 심지어 “도”(고전 1:18)라고 번역하므로, 독자는 그 다양한 우리말들이 λόγος라는 한 헬라어 낱말을 지칭한다고 상상하기 어렵다. ψυχή의 경우도 『개역개정』은 “영혼”(눅 1:46; 12:19), “마음”(마 12:18; 26:38; 막 14:34; 요 12:27; 히 10:38), “목숨”(마 6:25; 눅 12:22, 23, “사람”(행 2:43), “누구”(πάσα ψυχή, 행 3:23), “생명”(행 20:10), “혼”(살전 5:23)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므로, 독자는 이 다양한 말들을 ψυχή라는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의들과 연결하기 어렵다. 번역자는 원 뜻을 되살리려고 나름대로 애썼겠지만, 한 헬라어 단어를 것처럼 편차가 심한 우리말들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예컨대, 한국인 독자는 “십자가의 도(λόγος)”(고전 1:18)의 “도”를 “그 도(δόξ)를 좇는 사람”(행 9:2)의 “도”와 같은 “도”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했다면 덜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또한 “마음이 고민”(마 14:34)한다면, ψυχή라는 원어를 살려, “영혼이 고민”한다고 했으면 원어의 뜻이 살아나지 않았을까? 설명이 여기에 미치자, 그 학생은 매우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은 성경을 잘 알고 싶는데 성경 원어를 공부할 형편이 못되니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필자는, 성경을 원어로 읽지 못하지만 원어에 가깝게 읽고 싶어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성경 원문의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수준에서 최대한 원문의 형식을 살려 번역한 전문가용 번역 성경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까닭을 “마가복음”의 씨 뿌리는 자 비유의 첫째 절(Ἀκούετε. ἰδοὺ ἐξήλθεν ὁ σπείρων σπείραι: 막 4:3)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 서울신학대학교 강사, 신약학.

2. 막 4:3과 그 병행절의 번역

독자들을 위하여 내용 일치에 치중하여 번역한 것이 원문의 함의를 상실한 경우는 무수히 많으며, 그 한 예는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번역이다. 이 짧은 논문에서 비유 전체를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도입 부분만 다루겠다. 마가복음 4:3과 그 병행절은 다음과 같다:

막 4:3: Ἀκούετε. ἰδοὺ ἐξῆλθεν ὁ σπείρων σπείραι

『개역개정』: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공동』: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현대인의성경』: “잘 들어라.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새번역』: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마 13:3: ἰδοὺ ἐξῆλθεν ὁ σπείρων τοῦ σπείρου

『개역개정』: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공동』: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현대인의성경』: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새번역』: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눅 8:5: ἐξῆλθεν ὁ σπείρων τοῦ σπείρου τὸν σπόρον αὐτοῦ

『개역개정』: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공동』: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현대인의성경』: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새번역』: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먼저, “마가복음”은 두 개의 명령형 동사로 시작한다. 현재 직설 명령형 동사 ἀκούετε가 먼저 등장하고, 이어서 단순과거 직설 명령형 동사 ἰδοὺ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문자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들으라, 보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 그러나 “마태복음”은 하나의 명령형 동사 ἰδοὺ로 시작하며, 문자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보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은 명령형 동사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며, 문자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뿌리는 자가 그의 씨앗을 뿌리러 나가서 ….” 이처럼 공관복음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각각 다르게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번역들은 이들 사이의 차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매우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이 짧은 논문에서는 누가 무엇을 뿌렸는가 하는 점과, 명령형 동사들을 다루되,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다루겠다.

3. 누가 무엇을 뿌렸는가?

세 개의 공관복음은 뿌리는 이를 ὁ σπείρων이라고만 표현하고 정확히 뿌리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독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를 허용한다. 따라서 독자는 뿌리는 자를 하나님, 예수님, 인간, 농부, 선생 등으로 풍부하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본은 한결같이 뿌리는 주체를 “씨(를) 뿌리는 자/사람” 또는 “한 농부”라고 못 박아 정의함으로써, 원문이 풀어놓은 다양한 함의들을 짓누르고 풍부한 해석 가능성을 억압한다. 특히 『공동번역』은 “사람”이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뿌리는 자를 하나님 내지는 신이라고 해석할 가능성을 원천봉쇄한다.

이에 반하여, 라틴어 VUL은 헬라어처럼 단수 주격 분사 “seminans”(뿌리는 자)를 사용하고 “씨를”에 해당하는 낱말은 넣지 않았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도 “A sower”(NRS, RSV, NAB, LEW)이라 번역하고 “씨”에 해당하는 단어는 넣지 않음으로써 원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의역의 폭을 널리 허용한 번역도 있다. 예컨대 NIV 성경은 ὁ σπείρων을 “a farmer”라 번역하고 원어에 없는 “his seed”라는 목적어 구를 첨가하는데(a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 『현대인의성경』이 NIV에 가깝다(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그러나 학자들은 대개 원어의 뜻을 살려 문자대로 옮기는 편이다. 예컨대, 맥(Burton L. Mack)은 “A sower went out to sow”라 번역하고, 콜린스(Adela Y. Collins)는 “the sower went out to sow”라 번역한다. 정관사 ὁ를 살린 콜린스의 번역이 원어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유사하게 독일어 ZUR도 정관사를 살려 “der Sämann”(그 뿌리는 자)이라 번역한다.¹⁾ 대부분의 영어 성경본들이 보여준 예와 같이 우리말 성경도 “뿌리는 자”라고만 번역한다면, 내용 일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식 일치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뿌리는 자가 무엇을 뿌렸는지 정의하지 않고, 오로지 “누가복음”만이 “그의 씨를”(τὸν σπόρον αὐτοῦ) 뿌렸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경우에도 한결같이 “씨를” 뿌렸다고 명시적으로 번역함으로써, 원문이 주는 여백의 미와 다른 해석의 여지를 근절한다.

그러면 씨 외에 뿌릴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있다! 성경 자체에 뿌리는 자가 뿌릴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누가복음”의 비유에서는 “씨를”(눅 8:5) 뿌리지만, 비유의 해석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ὁ λόγος τοῦ θεοῦ, 눅 8:11)을 뿌린다. 한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비유 해석에서 뿌린 것은

1) Burton L. Mack, *Mark and Christian Origins: A Myth of Innocenc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91), 153; Adela Yarbro Collins, *Mark: A Commentary*, W. Harold, ed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238.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씀”(τὸν λόγον, 막 4:14; 참조. 마 13:19-23)이다. 또한 뿌리는 자는 “좋은 씨”(τὸ καλὸν σπέρμα, 마 13:37)를 뿌릴 수도 있고, “의”(δικαιοσύνην, LXX 잠 11:21)를 뿌릴 수도 있으며, “악한 것들”(φάῦλα, LXX 잠 22:8)을 뿌릴 수도 있다.

성경 밖에서도 뿌릴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하게 등장한다. 플라톤은 데미우르고스가 세계영혼을 만들어 그것들을 잘게 부순 다음에 여러 천체와 시간에 뿌렸다고 표현한다²⁾:

ἔσπειρε τοὺς μὲν εἰς τὴν γῆν τοὺς δὲ εἰς τὴν σελήνην τοὺς δὲ εἰς τὰ ἄλλα ὄργανα χρόνου.

그(데미우르고스)는 뿌렸다. 어떤 것들은 땅에, 어떤 것들은 달에, 어떤 것들은 남아 있는 시간의 기관들에.³⁾

또한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신은 이 세상에 퍼진 씨앗들(λόγοι σπερματικοί)과 같은데, 이런 시각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λόγος라는 신 자신이요, 뿌린 씨앗도 λόγος라는 신 자신이 된다.⁴⁾ 알렉산드리아의 펠론도 같은 용어(λόγοι σπερματικοί)를 사용했다.⁵⁾ 세 개의 공관복음 역시 뿌린 것을 λόγος라고 해석하는데(막 4:14-20; 마 13:19-23; 눅 8:12, 13, 15), 이런 해석은 어찌면 당시에 그런 사상들을 접한 사람들을 얻기 위한 선교적 전략이었을지 모른다. 또한 맥이 지적한 대로, 당시에 농사와 관련된 비유, 특히 씨 뿌리기는 전형적으로 교육(παιδεία)을 빗대어 말하는 방식이었으니, 뿌리는 자는 스승 또는 지혜를, 뿌린 것은 가르침을, 토양은 학생을 지칭하기도 했다.⁶⁾ 그러므로 우리말 번역도 뿌리는 자를 “사람”이나 “농부” 또는 “씨를 뿌리는 자”라고 고정하지 말고, 그냥 “뿌리는 자”라고 번역해야 헬라어 본문이 간직하고 있는 풍부한 해석 가능성이 보전될 것이다.

2) Plato, *Timaeus* 42d in *Plato IX*, Loeb Classical Library 234, R. G. Bury 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42.

3) 필자 역.

4) 참조. Diogenes Laertius, *Lives of Eminent Philosophers* 7.147-149 in *Diogenes Laertius II*, Loeb Classical Library 185, R. D. Hicks, 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250-252.

5) Philo of Alexandria, *Opif.* 43 in *Philo I*, Loeb Classical Library 226, F. H. Colson and G. H. Whitaker, 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32.

6) Mack, *Mark and Christian Origins: A Myth of Innocence*, 159; 참조. Adela Yarbro Collins, *Mark: A Commentary*, 243-246; Ron Cameron, “Parable and Interpretation in the Gospel of Thomas,” *Forum 2 Je* (1986), 3-39, 21.

4. 명령형 동사 해석의 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명령형 동사 ἰδοῦ로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명령형 동사 없이 시작하며, “마가복음”은 특이하게도 두 개의 명령형 동사 ἀκούετε와 ἰδοῦ를 연달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ἀκούετε에 담긴 들음의 주제는 신명기 6:4를 연상시키고, 다음의 마가 본문들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ὁς ἔχει ὠτα ἀκούειν ἀκούετω, 막 4:9);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ἀκούσατέ μου πάντες καὶ σύνετε: 막 7:14); “이스라엘아, 들으라”(ἄκουε, Ἰσραήλ, 막 12:29).⁷⁾ 따라서 “들으라”는 마가의 신학을 담고 있는 중요한 표현으로서 문자대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마가에는 ἀκούετε와 ἰδοῦ가 연달아 나오고, 이 두 동사는 모두 주위를 환기시키고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시적 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둘 중 하나만 번역하는 경향이 있다:

『개역개정』: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새번역』: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현대인의성경』: “잘 들어라.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NAB: “Hear this! A sower went out to sow.”

NIV: “Listen! A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

NRS: “Listen! A sower went out to sow.”

RSV: “Listen! A sower went out to sow.”

ZUR: “Hört! Der Sämann ging aus, um zu säen.”

그러면 마가가 부주의하게 실수로 두 명령형 동사를 잇달아 쓴 것일까? 그렇지 않다! 마가는 4:24에서도 들음의 주제와 봄의 주제를 의도적으로 연달아 사용한다: “너희가 들은 것을 보라!”(βλέπετε τί ἀκούετε).⁸⁾ 이어지는 말(“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은 듣기 자체보다 들은 것을 보는 일, 곧, 헤아리는 일에 더 큰 비중을 둔다. 그런데 마가복음 4:3에서 ἀκούετε는 현재 직설 명령형 동사로서 듣는 행동을 계속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ἰδοῦ는 부정과거 직설 명령형 동사로서 단순한 행동에 대한 명령이므로,

7) 참조. C. S. Mann, *Mark: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7 (Garden City: Doubleday, 1986), 260-262; Vincent Taylor,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The Greek Text with Introduction, Notes, and Indexes*, 2nd e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 252; Robert A. Guelich, *Mark 1-8:26*, WBC 34A (Dallas: Word Books, 1989), 192.

8) 필자 역.

이 두 동사를 합하여 ‘듣기를 계속하여 마침내 보라(이해하라 또는 헤아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4:3의 ἀκούετε, ἰδοῦς는 마가가 편집 과정에서 실수한 표현이 아니라, 마가복음 4:24의 βλέπετε τί ἀκούετε와 같이 마가가 의도적으로 들음과 봄의 두 주제를 결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마가복음 4:12 역시 비유가 듣기는 쉬우나 깨닫기(또는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저희가 듣기는 들으나 깨닫지 못하며”(ἀκούοντες ἀκούωσιν καὶ μὴ συνιῶσιν). 마가복음 4:33은 무리들도 비유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음을 일깨운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Καὶ τοιαύταις παραβολαῖς πολλαῖς ἐλάλει αὐτοῖς τὸν λόγον καθὼς ἠδύναντο ἀκούειν). 그러므로 마가에서 예수가 말씀하신 비유는 듣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으나, 보고 깨닫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4:3의 ἀκούετε와 ἰδοῦς는 마가의 신학을 담고 있는 중요한 표현으로서 가감하기보다는 두 동사를 모두 문자적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명령형 동사를 모두 번역한 역본들과 학자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공동』: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LEW, KJV: “Hearken, behold, there went out a sower to sow.”

NAS: “Listen to this! Behold, the sower went out to sow.”

VUL: “audite ecce exiit seminans ad seminandum.”

LUT: “Hört zu! Siehe, es ging ein Sämann aus zu säen.”

콜린스(A. Y. Collins): “Listen, See, the sower went out to sow.”⁹⁾

굴리히(R. A. Guelich): “Listen! See! The sower went out to sow.”¹⁰⁾

건드리(R. Gundry): “Hear, Behold! A sower went out to sow.”¹¹⁾

5. 나오며

“마가복음”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철학적·문학적으로 풍부한 뜻을 매우 간결한 언어에 담아낸 정교한 작품이다. 마가의 예수는 누가 무엇을 뿌렸는지 못 박아 말하지 않은 채, 독자가 자신의 컨텍스트에서 주어진 비유의 행간을 읽음으로써 해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그러

9) Adela Yarbro Collins, *Mark: A Commentary*, 238.

10) Robert A. Guelich, *Mark 1-8:26*, 192.

11) Robert H. Gundry, *Mark: A Commentary on His Apology for the Cros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93), 191.

나 대부분의 우리말 성경은 “씨를 뿌리는 자/사람” 또는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못 박아 번역함으로써 헬라어본의 풍부한 해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마가에서 예수는 청중(독자)에게 비유를 들을 뿐만 아니라, “보라”고 촉구하면서, 스스로 보고 해야 할 결과에 따라 해야 할 일을 받게 되리라고 경고한다(막 4:24; 참조. 막 4:9, 12). 이런 맥락에서 판단컨대, ἀκούετε. ἰδοὺ(막 4:3)는 두 명령형 동사가 모두 마가의 신학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가감할 것이 아니라 문자대로 옮겨야 그 함의가 살아난다. 따라서 필자는 마가복음 4:3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기를 제안한다: “들으라, 보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

대부분의 번역은 본문의 형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번역이다. 언어마다 표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 일치에 치중하다 보면 번역자는 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형식에서 벗어나는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다. 형식을 양보한 번역 형태는 다양하다.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거나, 시제, 품사, 어순, 수 등을 바꾸거나, 없는 말을 넣거나, 있는 말을 빼거나, 비슷한 말로 치환하거나, 긴 문장을 자르거나, 짧은 문장을 서로 잇는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에 번역본만을 접하는 독자는 원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원어에 없는 신학적 의미를 나름대로 부여하기도 한다. 더구나 번역자의 판단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므로 무심코 한 직역이 원래의 뜻을 왜곡하기도 하고, 고심 끝에 한 직역이 원어의 의미를 억압하기도 한다. 언제 형식대로 번역하고 언제 형식에서 벗어난 번역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일은 노련한 전문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가능한 경우를 고려한 번역 지침을 마련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런 지침을 착오 없이 실행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훈련된 성서학자들이 내용과 형식을 최대한 일치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용어 통일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면밀하게 성경을 번역한다면 지나친 형식 불일치 번역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을 깊이 읽기 원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그런 전문가용 우리말 성경이 마련된다면 독자는 내용 일치에 치중하던 다른 회중용 성경들과 결들여 읽음으로써 원문의 뜻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 시대를 위한 우리말 번역 성경이 원문의 함의가 최대한 살아나면서도 현대인들에게 친숙하게 읽히는 성경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투고 일자: 2012. 10. 10. 심사 일자: 2012. 11. 9. 게재 확정 일자: 2012. 12. 26.)